

“프로 첫 해 부상으로 액땀... 이제 잘 될일만 남았다”



KIA 타이거즈의 루키 박민이 “액땀했으니 45살까지는 야구하고 싶다”고 웃으며 프로 첫 시즌을 돌아봤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박민은 올 시즌 두 차례 큰 시련을 겪었다. 5월 27일 안와 골절상을 입고 한달 가량 자리를 비웠던 박민은 10월 6일에는 코뼈가 부러져 일찍 시즌을 마감했다.

남들은 한 번도 겪기 어려운 흔치 않은 부상을 프로 첫해 연달아 당하면서 박민도 그를 지켜보는 이들도 애를 태웠다.

야탑에 출신인 박민은 KIA가 2차 1번으로 낙점한 ‘특급 유망주’로 홍종표와 함께 스프링 캠프에도 참가해 프로 데뷔를 준비했다.

익숙하고 자신 있는 유격수 자리에서는 물론 KIA의 약점인 3루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했던 박민은 5월 26일 퓨처스리그에서 담장을 넘기며 프로 첫 홈런을 장식했다.

하지만 박민은 손맛을 본 다음날 KT위즈와의 퓨처스 경기에서 투수의 공에 얼굴을 맞고 쓰러졌다.

안와골절 부상으로 원점으로 돌아간 박민의 2020시즌은 8월 12일 전환점을 맞았다.

처음 1군에 콜업된 박민은 이날 잠실에서 열린 LG와의 경기를 통해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8회말 대수비로 들어간 박민은 9회초 볼넷도 골라냈다.

박민은 “어렸을 때 야구 보러 잠실에 많이 갔었는데, 거기 있는 자체가 꿈인 줄 알았다”면서 잊지 못할 순간을 돌아봤다.

하지만 잠실에서 박민은 프로 첫 애러도 기

KIA 내야 기대주 박민

스프링 캠프서 유망주 눈도장
5월 퓨처스리그서 첫 홈런 뒤 부상
익숙한 유격수 대신 3루 도전도
“수비는 자신... 타격 다듬겠다”

룩했다. 8월 19일 이번에도 상대는 LG였다. 박민은 “그날 (나) 주환 선배가 허리 다친 줄 모르고 편하게 있었다. 중간에 타석부터 들어갔다. 선발투수가 켈리였는데 삼진을 먹으니까 다리가 떨렸다”며 “수비 나가서 유망남 타구가 왔는데 잘 처리했다. 다음 공 오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됐는데 플라이가 왔다. 자세를 낮춰서 기다려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점프했다. 기억도 안 난다.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아찔했던 순간을 돌아봤다.

좋은 수비 뒤 황당한 실수를 기록했던 박민은 대수비로 두 경기를 더 소화한 뒤 8월 26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이후 박민은 퓨처스리그에서 경험을 쌓으며 칼을 갈았지만 다시 1군에 올라오지는 못했다. 박민은 10월 6일 상무와의 경기에서 수비 도중 코뼈 골절상을 입으면서 프로 데뷔시즌을 어렵게 마무리했다.

박민은 “처음 다쳤을 때 너무 아파서 두 번째 부상 때는 별 느낌이 없었다. 아 또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그래도 부모님께서도 코

계 수술 안 해서 다행이라고 하셨다. 액땀했다고 생각한다. 크게 액땀했으니 45살까지 야구하고 싶다”고 웃었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가득한 시즌이지만 장기인 수비에서는 자신감을 얻었다.

박민은 “수비할 때 여유가 생긴 것 같다. 1군에서는 너무 급하게만 생각했는데 2군 내리로서 느낀 게 있다. 여유 있게 해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3루 처음 해봤는데 타구오는 게 까다로워서 적응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빠른 타구도, 느린 타구도 어려웠다. 그래도 3루 갔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기도 했다. 유격수는 익숙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수비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낀 점은 딱히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고민은 타격이다. 타격은 이번 마무리캠프를 치르면서도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다.

박민은 “타격은 올해 거의 성장이 없었다. 느낀 것들은 있는데 거의 못 보여줬다. 변화구도 좋고, 같은 스피드여도 공 끝 자체가 다르니까 타이밍 맞추는 게 적응이 안 됐다”며 “시즌 중에도 그렇고 캠프에서도 폼을 계속 수정하고 있다. 다리를 들어올릴 때 중심이동 폭이 커서 비꾸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를 두 번 다치면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후배가 들어왔다 (웃음). 아직 신인이기도 하고 나도 같은 신인이라고 생각한다”며 “활발하게 더 목소리를 내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 타격 폼을 더 다듬어 내년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영암군’ 최정만, 평창평화장사 금강급 정상

민속씨름리그 3차, 정석진 3-1 꺾어... 통산 12번째 왕좌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이 위더스제약 2020 민속씨름리그 3차 평창평화장사씨름대회에서 금강급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최정만은 17일 강원도 평창군 송어종합공원체협장에서 열린 대회 금강장사(90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정석진(부산갈매기)을 3-1로 꺾었다.

이로써 최정만은 7월 단오 장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개인 통산 12번째 금강장사다.

이승호, 임태혁과 함께 ‘금강 트로이카’로 불리는 그는 8강과 4강에서 이정훈(웅인백옥쌀), 김기수(태안군청)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생애 첫 장사 타이틀에 도전한 정석진이 첫판 밀어치기로 한 점을 쟁기며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최정만이 두 번째 판 발다리를 성공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진 세 번째 판에서 안다리도 역전에 성공한 최정만은 네 번째 판 시작과 함께 들배치기로 정석진을 쓰러뜨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임성재, 마스터스 기세 몰아 첫 우승 가자

20일부터 PGA RSM 클래식... 주목받는 우승 후보 꼽혀

골프 ‘명인열전’ 마스터스에 처음 출전해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둔 임성재(22)가 내친김에 2020-2021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20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시아일랜드의 시아일랜드 리조트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SM 클래식(총상금 660만 달러)에 출전한다.

1, 2라운드엔 시사이드 코스(파70)와 플랜테이션 코스(파72)에서 번갈아 치르고, 3라운드와 4라운드는 시사이드 코스에 열린다.

임성재는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남은 아쉬움과 벅찬 성취감을 안고 마스터스 개최지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의 시아일랜드로 이동, 일찌감치 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해 RSM 클래식을 건너뛰어 이번이 2018년에 이어 2년 만에 출전이다.

신인이던 2018년에는 나흘 내리 60대 타수를 적어내며 공동 37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그때와 위상과 경기력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

당시 임성재는 세계랭킹 100위였다. PGA투어에 막 발을 디딘 새내기였고 PGA투어 정규 회원으로 고작 5경기만 치렀을 뿐이다.

지금은 세계랭킹 18위에 PGA투어 68경기를 출

전했고, PGA투어대회 챔피언(혼다 클래식)과 투어 챔피언십 ‘최후의 30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세계 정상급이다.

특히 마스터스에서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과 최종일 맞대결을 펼쳐 준우승을 차지한 임성재는 이번 RSM 클래식에서 주목받는 우승 후보다.

PGA투어닷컴은 RSM 클래식 우승 후보 15명 가운데 임성재를 2위에 올려놨다.

마스터스 직후에 열리는 대회라 세계랭킹 20위 이내 선수가 딱 5명 출전한다.

세계랭킹 6위 웨브 심프슨(미국), 10위 티럴 해턴(잉글랜드), 16위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18위 임성재, 그리고 20위 루이 우스트허즌(남아공)이다.

마스터스에 출전했던 이들 5명이 우승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2018년 3위, 작년에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심프슨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마스터스 챔피언 데니 윌릿(잉글랜드)과 알렉스 노렌(스웨덴), 리 웨스트우드, 이언 풀터, 저스틴 로즈(이상 잉글랜드), 제이슨 데이(호주) 등도 눈에 띈다. 강성훈(33), 이경훈(29) 그리고 시니어투어로 주 무대를 옮긴 최정만(50)도 출전한다.

/연합뉴스



한국시리즈 3차전 관중 30%로 축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3~7차전 입장권 예매 다시 진행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치로 한국시리즈 3차전부터 입장관중이 30%로 조정된다.

KBO는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자정부터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0일 한국시리즈 3차전부터 입장 가능 인원을 최대 30%로 조정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KBO는 구장 수용 규모의 50%로 포스트시즌을 운영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고척돔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의 입장관중은 3차전부터 8200명부터 5100명

으로 줄어든다.

3차전부터 7차전까지의 입장권 예매도 다시 진행된다. 이미 예매가 끝난 입장권은 모두 자동 취소된다.

3-4차전 입장권 예매가 17일 시작됐고, 5-6-7차전은 18일 오후 2시부터 예매가 이뤄진다.

한국시리즈 입장권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KBO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장 판매는 진행하지 않는다. 예매는 경기 시작 후 1시간 뒤 마감된다. /김여울 기자 wool@

커트 실링, 8전9기 명예 전당 입성하나

2004년 밤비노 저주 폰 핏빛 투혼... 배리 본즈 등 후보 25명 공개

은퇴 후 각종 구설에 오른 ‘핏빛 양팔 투혼’의 주인공 커트 실링(54)이 9번째 도전 만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는 17일 실링을 포함한 2021년 명예의 전당 후보를 공개했다.

올해엔 실링, 로저 클레멘스, 배리 본즈, 게리 셰필드, 매니 라미레스, 새미 소사 등 14명의 기존 선수와 A.J. 버넷 등 새로운 후보 11명이 입성에 도전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후보는 실링이다.

실링은 통산 20시즌 동안 216승 146패 22세이브 10홀드, 평균자책점 3.46을 기록한 당대 최고의 투수다. 6번이나 올스타에 선정됐고, 3차례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썼다.

2004년엔 발목 부상 투혼으로 86년 만에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당시 실링이 신고 있던 양팔이 피로 물든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그러나 실링은 벌써 8번이나 명예의 전당 입성에 실패했다. 현지 매체들은 인성 문제와 은퇴 후 행보를 실패의 원인으로 꼽는다.

실링은 2007년 은퇴 후 비합법적인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무슬림을 나치 취급하고, 성 소수자를 조롱하는 등 도를 넘는 발언으로 여러 차례 공분을 샀다. 실링은 투표인단의 외면 속에 벌써 8번이나 고배를 마셨다. 그는 남은 두 차례 도전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지 않으면 후보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거나 10차례 도전에 75%의 투표율을 기록하지 못하면 후보에서 탈락한다.

현지 매체들은 실링의 명예의 전당 입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MLB닷컴은 “실링은 매년 9%포인트 이상 득표율이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70%의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올해엔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홈런왕’ 본즈와 ‘로켓맨’ 클레멘스의 입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본즈는 지난해 60.7%, 클레멘스는 6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선수 역시 이번이 9번째 도전이다. /연합뉴스